

기아 (000270)

신차 효과로 26.2Q의 리스크를 최소화

26.1Q Review: 매출액 29.5조원, 영업이익 2.2조원으로 컨센서스 부합

기아 26.1Q 실적은 매출액 29.5조원 (+5.3% YoY), 영업이익 2.2조원 (-26.7% YoY) 등을 기록했다. 26.1Q 동사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 ① P: 26.1Q 전체 하이브리드 판매는 13.8만대를 기록했고 (+32.1% YoY), 특히 미국 하이브리드 판매는 4.0만대 기록 (+73.5% YoY, 미국 판매량 대비 19.3%). 26.1Q 평균환율은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우호적 환경 조성되었고, 이에 따른 26.1Q 기아 ASP는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
- ② Q: 26.1Q 도매 판매 78.0만대 (+0.9% YoY) 를 기록했고, 주요 지역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하 26.1Q 도매 판매 YoY, 미국 1.9%, 유럽 +3.8%, 인도 +11.6%). 미국의 경우 전년 동기 높은 기저에 따른 영향이 존재했고, 무엇보다 26.1Q 글로벌 산업 수요가 7.2%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또한 26.1Q 발생한 약 19만대 규모의 아중동 판매 감소분을 중남미에서 11만대의 판매 증분을 기록하며 만회했다는 점도 주목할 지점.
- ③ C: 26.1Q 관세 비용은 7,550억원 발생하며 관세 인하 온기 반영 (25.2Q 0.7조원, 25.3Q 1.2조원, 25.4Q 1.0조원). 다만 기말 환율 급등, EV 중심의 신차 출시 영향으로 판매보장비 1.2조원 발생 (+59.8% YoY, 매출액 대비 비중 25.1Q 2.7% → 26.1Q 4.1%). 26.03부터 이란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반영. 26.1Q 기아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각 8.0% 17.1% 증가.

26.2Q 본격화될 신차 효과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 가능

기아 26.2Q 영업 환경은 1) 이란 전쟁 후 매크로 환경 악화에 따른 자동차 산업 수요 감소, 2)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상승 압박, 3) 유럽 내 중국 OEM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 요인을 마주하고 있다. 다만 이는 사실상 모든 완성차 OEM이 가지고 있을 고민이고, 기아의 경우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신차 효과를 통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① 미국: 26.02부터 HEV PT 옵션이 존재하는 텔룰라이드 2세대 판매 본격화. 26.03 미국 텔룰라이드 판매량은 13,306대, HEV 비중은 25.2% 기록. 26년 연간 판매 기준 텔룰라이드 신차 출시를 통한 미국 HEV 판매 증분은 약 3만대 이상일 것으로 전망. 기아 하이브리드 경쟁력은 향후 차종 확대를 통해 명확해질 것. 기아는 올해 CID 행사에서 미국 시장 K4, K5 HEV 출시를 계획하고 있음과 동시에, 30년 픽업트럭 HEV 출시할 예정임을 언급. 이를 통해 미국 주요 세그먼트 수요를 대응하는 HEV 라인업 완성을 목표.
- ② 유럽: 26.04부터 본격 판매에 돌입한 EV2를 통해 EV2~EV9에 이르는 EV 플라인업 구축 완료. 특히 서유럽 기준 EV 수요 중 58%가 C 세그먼트 이하 차량으로 구성되고 있고, 주요 유럽 국가들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또한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기아의 소형 EV 신차 출시 효과가 강할 것이라는 근거 중 하나. 기아는 30년 유럽 권역 PBV 도매 판매 가이드언스를 13.3만대로 제시 (전체 가이드언스 23만대). PV5 신차 출시 효과 또한 26년에 걸쳐 나타날 것(25.4Q 출시, 26.1Q 유럽 권역 6,035대 판매)

기아 26.2Q 매출액 32.4조원 (+10.4% YoY), 영업이익 2.6조원 (-5.6% YoY)을 전망한다 (지역별 도매 판매 YoY 전망치, 미국: +1.2%, 유럽: +4.6%, 인도: 15.2%).

Company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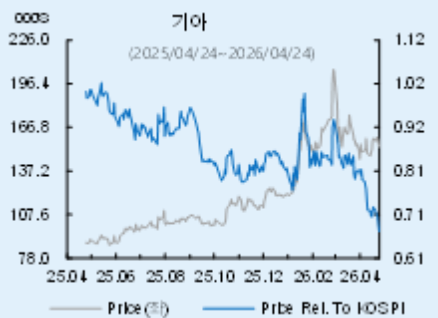
Buy (Maintain)

목표주가(12M)	240,000원(유지)
증가(2026.04.24)	153,400원
상승여력	56.5%

Stock Indicator	
자본금	2,139십억원
발행주식수	39,041만주
시가총액	59,889십억원
외국인지분율	38.5%
52주 주가	87,100~206,000원
60일평균거래량	1,419,420주
60일평균거래대금	236.0십억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8	-1.2	33.5	73.9
상대수익률	-19.4	-32.0	-30.8	-80.4

Price Trend



FY	2025	2026E	2027E	2028E
매출액(십억원)	114,141	124,272	130,318	137,362
영업이익(십억원)	9,078	9,902	10,987	12,162
순이익(십억원)	7,561	8,135	8,913	9,782
EPS(원)	19,111	20,836	22,830	25,056
BPS(원)	156,726	173,236	191,741	212,471
PER(배)	6.4	7.4	6.7	6.1
PBR(배)	0.8	0.9	0.8	0.7
ROE(%)	12.9	12.6	12.5	12.4
배당수익률(%)	5.6	4.2	4.2	4.2
EV/EBITDA(배)	2.4	2.7	2.2	1.7

주: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자동차/로보틱스]

이상수 2122-9197 sang.su@imfnsec.com

그룹 차원의 신사업 낙수효과는 기아에게도 당연히 향할 것

그룹 단위에서의 SDV, 자율주행 관련한 업데이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6 CID). 일부 투자자들은 CES 2026 이후 유의미한 진척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나,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기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미래 사업 관련해서 본격적인 성과 (SDV 데모카, Atlas 생산)를 관찰할 수 있는 시점은 26.2H로 전망한다.

- ① SDV 및 자율주행: 1) nVIDIA의 플랫폼 (Sensor Fusion)을 탑재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출시해 이를 통한 데이터 수집 구조를 구축한 후, 2) 양산차량에서 수집된 주행 데이터와 피드백을 통해 42Dot과 AVP본부이 중심이 되어 개발 중인 SDV, 자율주행 자체 알고리즘을 발전시키겠다는 투 트랙 전략 고수. 28년 양산차량 SDV 적용, 29년 L2++ 차량 출시 목표.
- ① Boston Dynamics: 2028년까지 3만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양산 관련 로드맵 유지하고 있고, 액츄에이터 공급망을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 또한 변경 사항 없음. 현대차그룹의 미국 로보틱스 사업, 생산을 총괄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알려지고, 이는 단순히 Boston Dynamics의 Atlas 뿐 아니라, 기타 제품군과 현대차그룹 단위의 로봇 파운드리 등의 신규 로보틱스 사업 또한 고려한 것으로 판단.

기아 목표 주가 240,000원 유지. 추가 상승 여력 56.5%

기아 목표주가를 240,000원으로 유지한다. 26년 EPS 20,836원 (관세 인하 효과 및 텔룰라이드 등 HEV 믹스 개선에 따른 EPS 증가), Target P/E 11.8배 (① 26.2Q 페이스카를 기점으로 동사 자율주행 경쟁력이 확인될 것이나, ② 중국 기술 선도 업체 대비 가지는 격차를 반영해야 할 것이고, ③ 타사에 집중된 시장 관심이 분산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 현대차 Target P/E 20% 할인)를 적용해 산출했다

그림1. 기아 Valuation Table

(단위: 원, 배, %)		비고
(A) EPS	20,836	12M Fwd EPS
(B) Target Multiple	11.8	현대차 Target P/E 20% 할인
적정주가	245,865	(A)*(B)
목표주가	240,000	
현재주가	153,400	2026-04-24 종가 기준
상승여력	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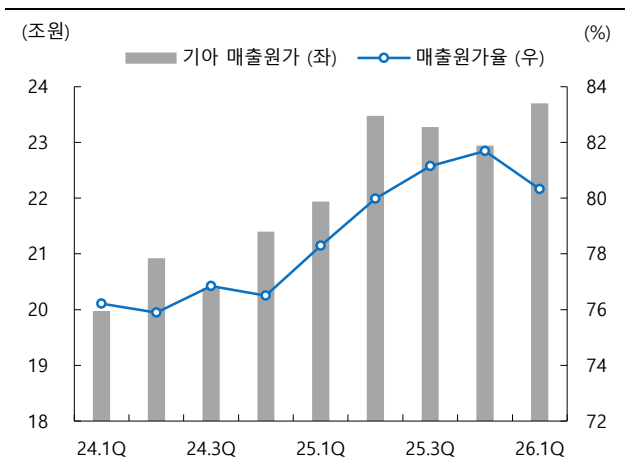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기아 분기 및 연간 실적 테이블

(억원, %)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024	2025	2026F
매출액	275,679	265,199	271,479	280,175	293,496	286,860	280,880	295,020	1,074,487	1,141,411	1,242,720
YoY	16.4	1.1	6.3	3.2	6.5	8.2	3.5	5.3	24.1	6.2	8.9
매출총이익	66,459	61,397	57,492	60,807	58,754	54,090	51,430	58,040	247,708	225,081	273,558
YoY	23.7	1.3	-1.9	5.8	-11.6	-11.9	-10.5	-4.6	37.4	-9.1	21.5
GPM	24.1	23.2	21.2	21.7	20.0	18.9	18.3	19.7	23.1	19.7	22.0
영업이익	36,437	28,813	27,164	30,085	27,647	14,620	18,430	22,050	126,671	90,782	99,017
YoY	26.8	-15.3	-5.2	10.8	-24.1	-49.3	-32.2	-26.7	75.1	-28.3	9.1
OPM	13.2	10.9	10.0	10.7	9.4	5.1	6.6	7.5	11.8	8.0	8.0
세전이익	40,400	32,319	24,399	32,434	30,001	18,870	21,110	26,350	134,963	102,415	113,145
지배주주순이익	29,566	22,679	17,393	23,926	22,682	14,220	14,710	18,300	97,729	75,538	81,345
YoY	39.5	-19.5	-21.7	37.6	-23.3	-37.3	-15.4	-23.5	80.7	-22.7	7.7
NPM	10.7	8.6	6.4	8.5	7.7	5.0	5.2	6.2	9.1	6.6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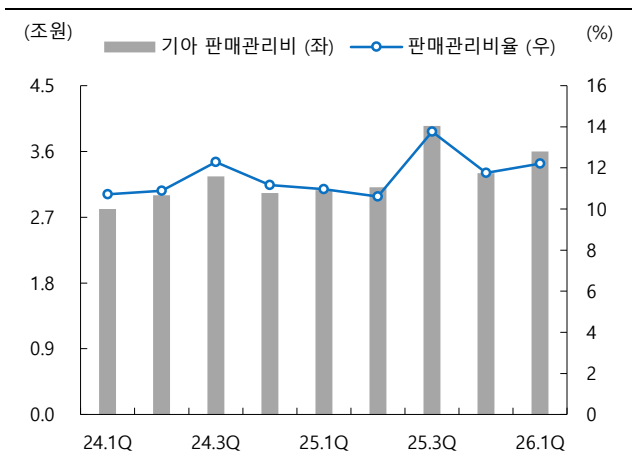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기아 분기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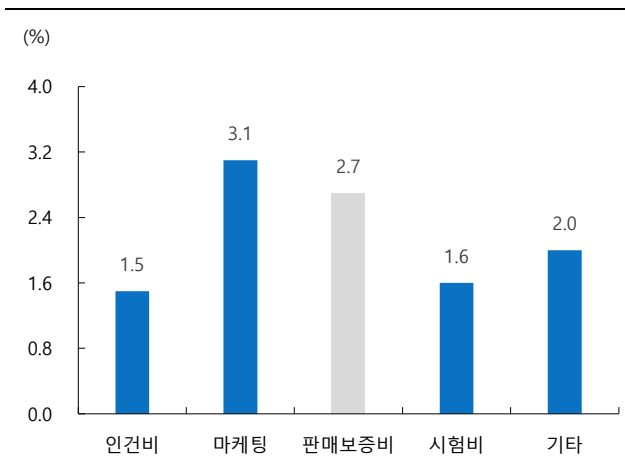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기아 분기 판매관리비 및 판매관리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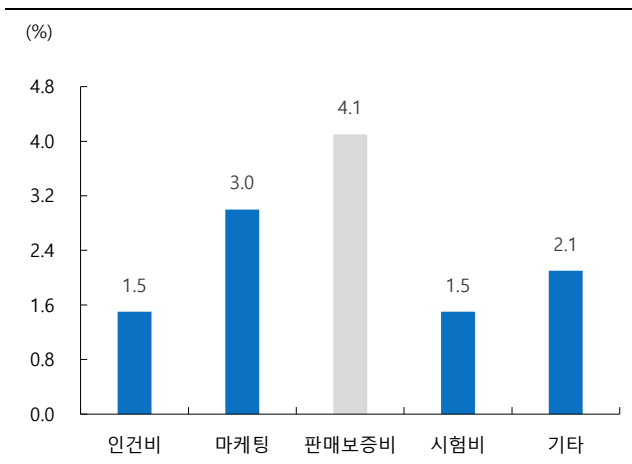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25.1Q 기아 판매관리비 주요 계정별 매출액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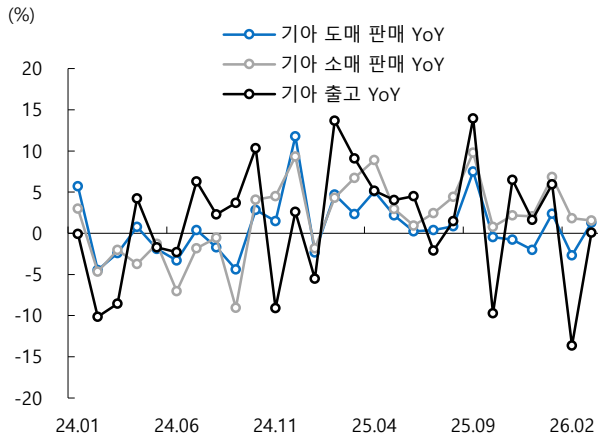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26.1Q 기아 판매관리비 주요 계정별 매출액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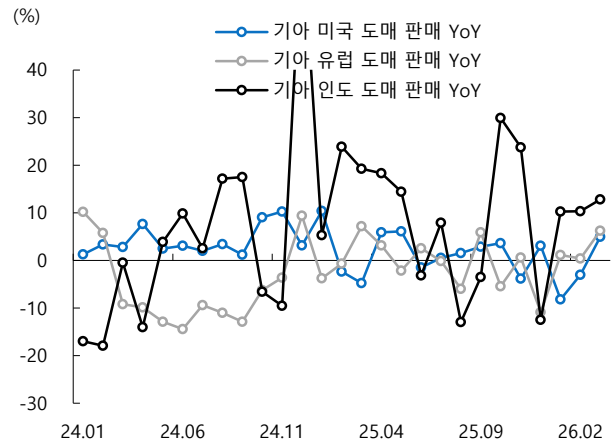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7. 기아 도매 판매, 소매 판매, 출고 대수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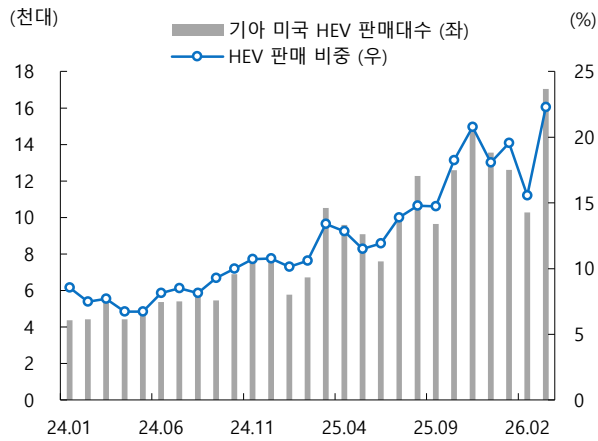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8. 기아 미국, 유럽, 인도 도매 판매 대수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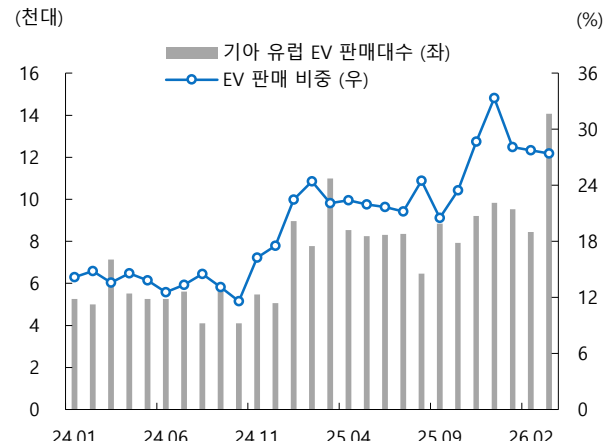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9. 기아 미국 HEV 판매대수 및 미국 판매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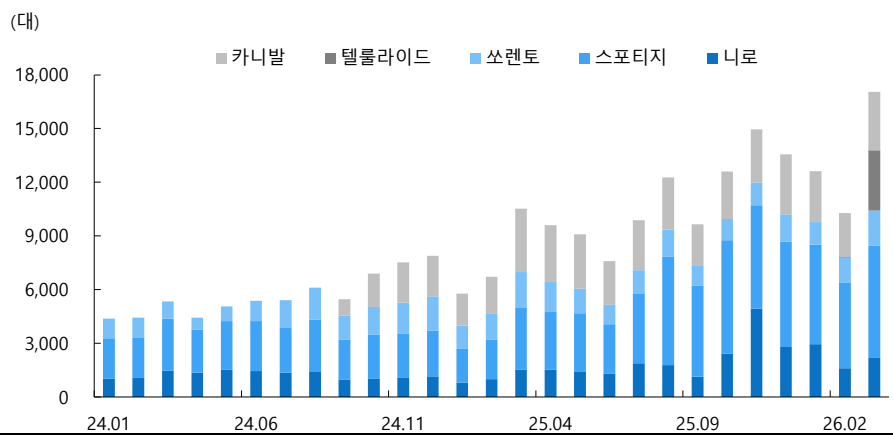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0. 기아 유럽 EV 판매대수 및 유럽 판매 대비 비중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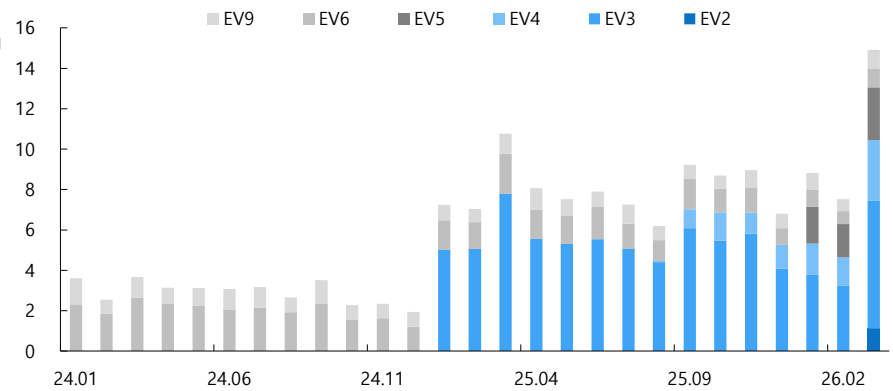
그림11. 기아 미국 차종별 HEV 판매대수 추이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2. 기아 유럽 EV 라인업별 판매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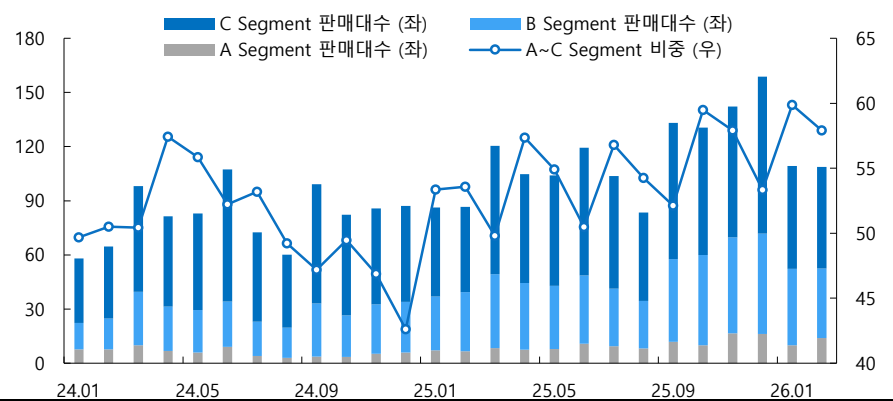
(천대)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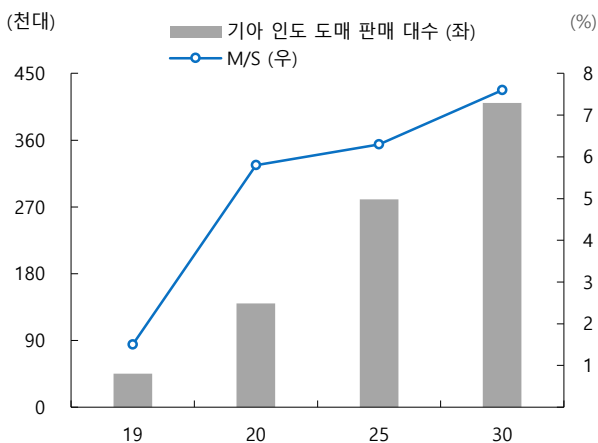
그림13. 서유럽 EV 세그먼트별 판매대수 및 A~C 세그먼트 비중

(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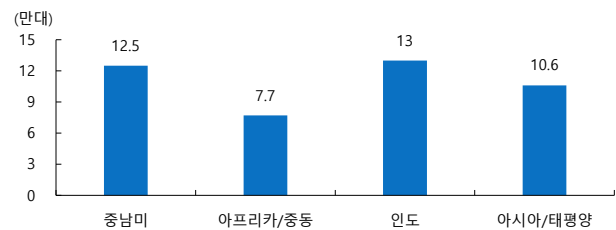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4. 기아가 2026 CID에서 제시한 인도 시장 가이드نس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5. 기아가 2026 CID에서 제시한 신흥 시장 가이드نس



중남미: 콜롬비아, 에콰도르 산업 수요를 중심으로 현지 특화 상품 개발 목표
아프리카/중동: 아프리카 중심 성장, 30년 아중동 내 아프리카 비중 29프로 목표
인도: 제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 2030년 도매 판매 41만대, 시장 점유율 7.6% 목표
아시아/태평양: 그룹사 거점 활용한 ASEAN 공략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6. CID 행사간 확인된 SDV 및 자율주행, Boston Dynamics 관련 업데이트

KIA 2026 CEO Investor Day 중 SDV/자율주행 관련 질의응답

Q. 자율주행 관련해서 AVP 본부와 nVIDIA 각 주체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nVIDIA는 SoC와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 이들을 통해 고객에게 완성차로서 완전한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고자 함. 양산차에 nVIDIA의 플랫폼을 탑재하고, 고객의 차량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현대차그룹이 보유할 수 있고, 이는 내재화로 연결.

AVP본부와 42dot은 차량 아키텍처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 전반을 담당.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SDV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 42dot과 AVP 본부는 분명히 원팀이나, AVP 본부는 양산에 특화, 42dot은 선행 기술 연구의 역할에 더 집중.

Q. 차종에 따른 자율주행 탑재 계획, nVIDIA와의 협력→Only Vision 중단인지?

nVIDIA의 플랫폼에는 여러가지 센서 구성이 존재하고, 각 센서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야 함. 카메라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레이더의 단점을 카메라가 보완한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 Tesla는 Camera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것에 집중.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Camera, Lidar, Radar 각 센서의 잠재력을 모두 발휘하면 당연히 더 좋은 시스템. 즉 기존의 Atria AI는 Vision에 집중한 솔루션임. 이외에 추가적으로 센서를 더하는 것뿐, 충돌되지 않는 것. 차량마다 센서 구성도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차종별로 자율주행 요구 수준이 다르다면 Lidar를 추가.

Q. 만약 경쟁업체도 nVIDIA의 Alpamayo를 사용한다면 차별점은 어디에서 발생?

Alpamayo 외에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은 업체가 4~5개는 될 것으로 판단됨. SDV로 전환되면서 차량의 주행 및 내부 편의성 기능을 차별화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데이터를 얼마나 모으냐. 많은 시장 플레이어가 L3 이하의 용어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가 일부 면제되는 L3 자율주행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 즉 차후에 경쟁 업체간 차이가 눈에 띄는 것은 없겠지만, 결국 자율주행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따라 차별화될 것. 그런데 단순한 Buy Solution의 한계는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기아와 같이 자체 개발 역량을 필요로 함.

KIA 2026 CEO Investor Day 중 Boston Dynamics 관련 질의응답

Q. Boston dynamics 양산 개시 시점과 양산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양산의 주체가 누구인지?

2028년 3만대 CAPA의 공장 건설 완공 목표. 휴머노이드 생산에 당연히 기아도 참여할 것. 향후 미국, 한국 각 지역의 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로봇의 경우 현지 생산을 채택할 예정.

Q. Google DeepMind와의 개발 성과가 있는지, Google과 nVIDIA 시스템간의 충돌은 없는지?

지난 3개월의 기간이 개발 협력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함. 서로의 역할을 구분하고, 초기 아키텍처 설계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 각 주체 간의 역할 충돌은 없음.

Q. 향후 3만대, 그리고 그 이상의 휴머노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공식적인 발표 내용에 생산대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생산 CAPA가 3만대라는 것. 다만 그룹사 외에도 Boston dynamics의 고객이 발굴될 가능성 존재함. 현대차그룹의 내부 수요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외부 고객 찾는 과정의 리스크가 적음. 일단 자동차 생산 공장 내 물류 작업을 먼저 대체할 계획.

그 이후에는 전반적인 '물류 산업' 진출이 목표. 결국 의장 라인에 들어가는 것. 분명 의장 공장 안에서도 사람이 수행하기 힘든 작업이 있다 (반복, 근골격계에 하중이 가는 작업). 여기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겠다는 것. 결국 경쟁 OEM의 생산 라인도 기아와 동일한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Boston dynamics의 확장도 가능.

CID 행사에서 SDV 및 자율주행, 그리고 Boston Dynamics와의 시너지 등에 대한 일부 업데이트는 존재했으나, 절대적인 개발 시간이 부족해 유의미한 성과는 나오기 힘든 시점임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십억원)	2025	2026E	2027E	2028E
유동자산	44,426	49,994	55,078	61,262
현금 및 현금성자산	13,998	17,207	20,682	25,047
단기금융자산	8,116	8,522	8,948	9,395
매출채권	7,314	7,932	8,301	8,730
재고자산	14,666	15,968	16,745	17,650
비유동자산	54,553	56,910	60,686	64,930
유형자산	19,934	20,831	23,075	25,713
무형자산	4,806	5,002	5,207	5,420
자산총계	98,979	106,905	115,763	126,192
유동부채	28,378	30,347	32,417	35,142
매입채무	10,662	11,609	12,173	12,831
단기차입금	211	201	191	181
유동성장기부채	1,154	1,154	1,154	1,154
비유동부채	9,410	8,921	8,486	8,096
사채	979	783	627	501
장기차입금	-	-	-	-
부채총계	37,789	39,268	40,903	43,238
지배주주지분	61,188	67,634	74,858	82,952
자본금	2,139	2,139	2,139	2,139
자본잉여금	1,771	1,771	1,771	1,771
이익잉여금	54,520	60,128	66,516	73,772
기타자본항목	2,758	3,595	4,432	5,269
비지배주주지분	3	3	3	3
자본총계	61,190	67,636	74,861	82,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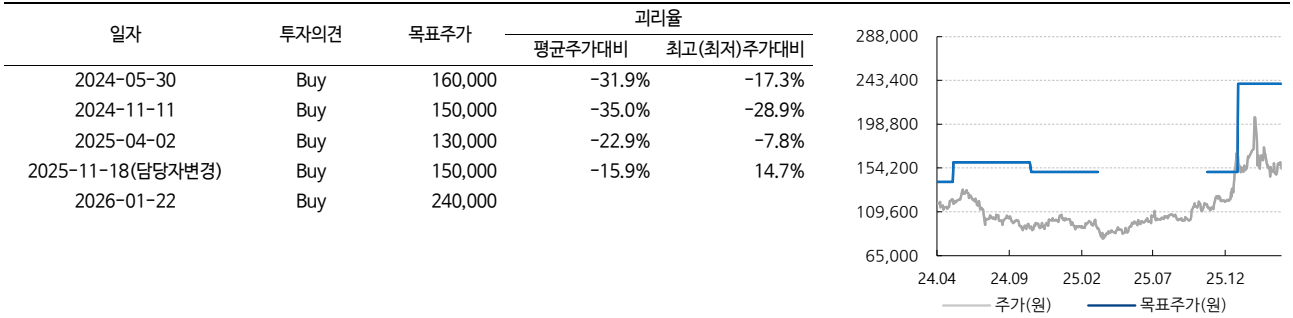
현금흐름표				
(십억원)	2025	2026E	2027E	2028E
영업활동 현금흐름	9,054	14,014	15,796	17,680
당기순이익	7,554	8,135	8,913	9,78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2,070	2,674	2,875	3,379
무형자산상각비	644	757	788	821
지분법관련손실(이익)	415	436	458	480
투자활동 현금흐름	-4,960	-5,667	-7,339	-8,365
유형자산의 처분(취득)	-3,593	-3,570	-5,119	-6,017
무형자산의 처분(취득)	-1,226	-953	-993	-1,034
금융상품의 증감	-1,046	-1,264	-1,327	-1,394
재무활동 현금흐름	-4,175	-2,925	-2,768	-2,737
단기금융부채의증감	-10	-11	-10	-10
장기금융부채의증감	-830	-196	-157	-125
자본의증감	-	-	-	-
배당금지급	-2,559	-2,642	-2,526	-2,526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감	432	3,209	3,475	4,365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3,567	13,998	17,207	20,682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3,998	17,207	20,682	25,047

자료 :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포괄손익계산서				
(십억원,%)	2025	2026E	2027E	2028E
매출액	114,141	124,272	130,318	137,362
증가율(%)	6.2	8.9	4.9	5.4
매출원가	91,633	96,916	100,695	100,695
매출총이익	22,508	27,356	29,623	36,667
판매비와관리비	13,430	17,454	18,636	24,505
연구개발비	2,142	2,332	2,445	2,578
기타영업수익	-	-	-	-
기타영업비용	-	-	-	-
영업이익	9,078	9,902	10,987	12,162
증가율(%)	-28.3	9.1	11.0	10.7
영업이익률(%)	8.0	8.0	8.4	8.9
이자수익	949	1,104	1,271	1,478
이자비용	75	69	65	61
지분법이익(손실)	415	436	458	480
기타영업외손익	26	56	56	56
세전계속사업이익	10,241	11,314	12,380	13,586
법인세비용	2,687	3,168	3,466	3,804
세전계속이익률(%)	9.0	9.1	9.5	9.9
당기순이익	7,554	8,135	8,913	9,782
순이익률(%)	6.6	6.5	6.8	7.1
지배주주귀속 순이익	7,561	8,135	8,913	9,782
기타포괄이익	837	837	837	837
총포괄이익	8,391	8,972	9,750	10,619
지배주주귀속총포괄이익	-	-	-	-

주요투자지표				
	2025	2026E	2027E	2028E
주당지표(원)				
EPS	19,111	20,836	22,830	25,056
BPS	156,726	173,236	191,741	212,471
CFPS	25,971	29,623	32,214	35,813
DPS	6,800	6,500	6,500	6,500
Valuation(배)				
PER	6.4	7.4	6.7	6.1
PBR	0.8	0.9	0.8	0.7
PCR	4.7	5.2	4.8	4.3
EV/EBITDA	2.4	2.7	2.2	1.7
Key Financial Ratio(%)				
ROE	12.9	12.6	12.5	12.4
EBITDA이익률	10.3	10.7	11.2	11.9
부채비율	61.8	58.1	54.6	52.1
순부채비율	-32.3	-34.9	-36.9	-39.3
매출채권회전율(x)	15.8	16.3	16.1	16.1
재고자산회전율(x)	8.4	8.1	8.0	8.0

기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산업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Overweight(비중확대)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Neutral(중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Underweight(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2026-03-31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88.2%	11.8%	-